

#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기희균형 면접구술시험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가] 경제적 이익이나 지위의 분배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이 가장 객관적일까? 업적에 따르는 방식이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학교나 직장일수록 구성원들을 시험 결과로 선발하는 것이 공정의 이념에 부합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제도의 실시는 국가 발전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 직장의 보수는 그 사람이 내놓은 성과에 상응하여 지급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가장 공정하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성취동기가 올라가고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잠재능력이 최고도로 발휘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 [나] 2013년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37.8%로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암환자의 24.0%보다 13.8%포인트나 높았다. 3년과 1년 생존율 차이도 각각 14.3%포인트(5분위 43.4%, 1분위 29.1%), 14.6%포인트(5분위 61.9%, 1분위 47.3%)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에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암환자의 경우 5년, 3년, 1년 생존율 격차는 각각 8.4%포인트(5분위 60.8%, 1분위 52.4%), 8.6%포인트(5분위 65.7%, 1분위 57.1%), 6.4%포인트(5분위 77.4%, 1분위 71.0%)로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환자의 생명이 결부된 치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질병의 시급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다] 생물은 먹이나 생활공간 등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기 때문에 집단을 이루는 개체 사이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는 습성, 형태 등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변이라고 하며, 변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르다.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 자손을 더 많이 남긴다. 다윈은 이러한 현상을 자연 선택이라고 하였다. 다윈은 변이와 자연 선택 과정을 종합하여 진화를 설명하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였다.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종은 전염병의 발생과 같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생물종이 유지될 수 있다.

[문제 1] [나]에 제시된 생존율 조사 결과를 [가]의 공정성 기준에 비추어 논하시오. (60점)

[문제 2] [다]에 제시된 ‘자연 선택’과 ‘유전적 다양성’ 각각의 관점에서 [나]의 생존율 조사 결과를 평가하시오. (40점)